

PVA, 수급밸런스 “빨간 불”

아시아 수요증가에 정기보수 여파 ... 8월 2000달러 인상

PVA(Polyvinyl Alcohol)의 수급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수요가 예측을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름 이후 일본, 싱가포르에서 대형 플랜트가 잇따라 정기보수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2003년에 비해 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아시아의 무역량이 현재 10%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사상 최고수준이었던 2002년에 필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PVA 가격도 톤당 1900달러로 협상이 진행중이어서 8월에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20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PVA는 2002년 가격상승을 배경으로 가수요가 발생해 아시아 무역량이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 2003년에는 반동으로 하락했으나 타이, 말레이, 인디아, 파키스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5% 내외의 신장률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1/4분기를 넘어선 시점에서 수요증가는 2003년 수준을 크게 웃돌아 현재상태로 가면 연간 10%의 신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공급은 싱가포르의 Poval Asia가 2004년 9-10월 4주간 정기보수에 들어갈 예정이며 Kuraray의 Okayama 공장도 3주 정도의 정리보수를 계획하고 있다. 또 정기보수 계획이 없는 JVP가 7월부터 8월에 걸쳐 정기보수에 들어가는 등 공급감소가 예상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PVA 생산기업들은 중요한 수요기업에 우선 판매하는 등 공급 차별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PVA 가격도 VAM 등 원료나 Utility의 상승을 반영해 톤당 100달러 인상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6월까지는 거의 모든 메이커들이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VA 생산기업들은 코스트 상승분을 흡수하기 위해 8월에는 톤당 200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학저널 2004/07/29>